

대학생의 개인 기업가지향성이 목표지향성과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배병윤 (한라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부 조교수)*

국문요약

청년실업의 문제는 이미 국내외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이며,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한가지인 창업은 여러 방면의 관심 속에 연구되어오고 있다. 창업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생들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창업동기와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 기업가지향성과 목표지향성이 경제적 창업동기와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개인 기업가지향성과 창업동기(경제적, 비경제적)의 관계에서 목표지향성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의 개인 기업가지향성은 목표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은 경제적 창업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확인되었다. 셋째, 대학생의 개인 기업가지향성은 경제적 창업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은 개인 기업가지향성과 경제적 창업동기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으며, 또한 개인 기업가지향성과 비경제적 창업동기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주제어: 개인 기업가지향성, 목표지향성, 창업동기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창업 및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지향성이 경제 성장과 기술발전, 그리고 고용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OECD국가들도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실업과 경기침체에 대응한 생존전략으로서 창업 및 기업가정신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청년인구의 실업률(국가통계포털, 2021)은 9.5%로 38만명에 이르고 있다. 실제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청년까지 포함한다면 청년실업률(15-29세까지의 경제활동인구 대상)은 훨씬 더 높아지고, 이에 따른 심각성은 삼포세대 또는 N포세대의 신조어가 나타날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용개선방안으로 창업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강좌와 동아리활동, 경진대회 등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 티켓몬스터 등 대학생이 창업에 성공한 기업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최근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개인 기업가지향성 고취와 관련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창업은 혁신적 기업의 모태가 되고 국가소득의 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에 의한 청년고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창업은 미래의 혁신인재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동안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지향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미국은 혁신과 벤처캐피탈, 영국은 창업과 다양성, 독일은 기술 및 지식의 이전과 대학창업 등의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연구주제의 다양성이 크게 높지 않으며 세부 연구 주제 간의 연결성도 높지 않았다(김선우·박진서, 2018).

기업가정신은 창업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기업가지향성은 성공적인 창업에 영향을 주는 행동의 성향을 의미한다(Lumpkin & Dess, 1996). 기업가지향성은 조직 수준의 기업가정신으로서 창업자 대상의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으며(Covin & Lumpkin, 2011; Slevin & Terjesen, 2011), 학생 또는 기업 조직의 개인 대상으로 개인 기업가지향성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Bolton & Lane, 2012; Santos et al., 2020).

Wang et al.(2021)는 한국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개인 기업가지향성과 가치일치와 개인성과에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개인성과를 성과 기대치, 직무만족, 조직몰입으로 측

* 주저자, 한라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부 조교수, byungyun.bae@halla.ac.kr

· 투고일: 2021-05-10

· 1차 수정일: 2021-07-02

· 2차 수정일: 2021-08-06

· 게재확정일: 2021-08-16

정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잠재적 예비창업자인 대학생 대상의 실증 연구는 이재석·이상명(2015)이 대학(원)생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창업의지 관계에서 개인 기업가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밝힌 연구가 있다. 대학생 대상의 기업가 정신 또는 개인 기업가지향성 연구는 주로 종속변수로 창업의지가 사용되었으며, 창업동기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연구 또한 있다(양준환, 2015; 배병운·이주현, 2018). 국내 대학에서는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등의 다양한 창업활성화 지원책을 마련하여 대학생들의 창업을 돕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창업 활동을 주로 하는 잠재적 예비창업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아직 창업 전 단계지만 이러한 학생들은 팀 단위로 창업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직 수준의 기업가정신인 기업가지향성 개념이 적용 가능 할 것이다.

창업은 단기적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신기술 및 신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며 창의적 혁신인재를 위한 성장과 도약의 디딤돌을 제공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기업가 지향성의 진작 및 창업동기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창업동기와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가지향성과 목표지향성이 경제적 창업동기와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업가지향성과 창업동기(경제적, 비경제적)의 관계에서 목표지향성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기업가지향성, 개인 기업가지향성

McClelland(1961) 높은 성취욕구와 창업 및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밝힌 실증 연구를 최초로 하였다. 창업자의 중요한 특성 중에서 위험감수성은 위험한 상황 하에서 이를 과감하게 받아들이거나 회피하는 정도를 말한다.

Miller(1983)는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기업가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을 규정하였고, 기업가지향성이 높은 기업이 전략적 의사결정, 경영철학, 조직 행동적 측면에서 창업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라고 하였다. 실증연구에 따르면 창업자는 계산적 위험감수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Brockhaus, 1980). 창업의지가 높은 학생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위험감수성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혁신성(inovativenes)은 개인이나 조직이 새로운 생산방식, 제품 및 아이디어 등을 도입하여 새로운 시장기회를 추구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전공의 학생들이 일반 경영학 전공 학생들에 비해 훨씬 더 혁신적이다(Sexton & Bowman-Upton, 1986). 진취성(proactiveness)은 남들보다 빠르게 기회를 인식하고 창업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Lumpkin & Dess(1996)는 기업가지향성을 창업을 이끌어가는 과정, 관행, 의사결정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하위요인으로 자율성, 혁신성, 위험감수, 적극성, 경쟁성을 제시하였다. 자율성은 독립적으로 목표를 도입하고 성취해나가는 창업 행동을 의미하며, 적극성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쟁성은 경쟁자와 대응하여 시장에 진출하거나 시장을 확장시키려는 창업가적 특성을 의미한다(Lumpkin & Dess, 1996). 장대성·임성배(2005)는 Lumpkin & Dess(1996)가 정의한 기업가지향성의 하위요인과 창업성과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개인 기업가지향성은 창업자가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기회를 인식하여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기업가적 능력을 구현할 때 경제적 성과를 달성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Santos et al., 2020). Bolton & Lane(2012)는 Lumpkin & Dess(1996)가 제시한 5가지 기업가지향성 차원을 기반으로 개인 기업가지향성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기업가지향성을 자율성, 혁신성, 위험감수, 적극성, 경쟁성 하위요인을 기초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매개변수로 목표지향성을 종속변수로 창업동기(경제적 창업동기, 비경제적 창업동기)를 설정하였다.

2.2 개인 기업가지향성, 목표지향성의 관계

목표지향성이란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더 높은 성과를 추구하기 위해 본인이 설정한 목표에 집중하여 달성하려는 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Dweck & Eliot, 1983; Van Yperen, 2003) 목표설정 연구의 이론적 토대는 조직심리학에 있으며 개인의 동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목표지향의 이론적 토대는 교육심리학에 있으며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Seijts, et al., 2004).

인지적, 감정적, 행위적 구성요인이 적응적 비적응적 유형에 따라 목표설정 연구는 개인의 노력과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목표지향 연구는 개인의 지식과 기술의 획득에 초점을 둔다(Bulus, 2011). 목표지향성이 성과목표지향을 추구하게 되고, 목표달성을 개인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획득하고자 하고 부정적인 판단을 회피하게 된다. 즉, 목표지향성이 높은 개인은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추구하고, 그들의 능력을 증명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부정적인 판단을 회피하는데 중점을 둔다(Bulus, 2011).

창업가는 자기 운명에 대한 강한 개척의지를 갖춘 목표 지향적 행위를 하며, 사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목표에 대한 야망과 자기성취에 있다(Brockhaus, 1980).

한편 높은 목표지향성을 지닌 개인 또는 조직은 낮은 목표 지향성을 지닌 개인 또는 조직에 비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것을 장려하고, 실수나 오류를 인정하는 성향이 강하다. 만일 기업가 정신이 강한 리더가 이끄는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조직분위기, 오류를 독려하는 분

위기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강해질 것이다. 따라서 기업가지향성은 개인 또는 조직이 부정적 평가와 판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증명하려는 목표지향성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강성두·강영순(2012)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기업가지향성(기업가정신)과 조직구성원의 목표지향성이 조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에서 기업가지향성과 목표지향성의 유의한 관계를 밝혔다. 개인 기업가지향성이 높은 대학생은 자율성과, 혁신성, 위험감수성, 적극성, 경쟁성의 성향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율성이 높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혁신성이 높고, 위험을 감수하며 적극적이며 경쟁성이 강한 대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목표지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대학생의 개인 기업가지향성은 목표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개인 기업가지향성, 목표지향성, 창업동기의 관계

창업동기(Entrepreneurial motivation)란 타인의 의존이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가능한 한 신속히 독립적으로 기업을 창립하고 싶어 하는 열망 혹은 경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양준환, 2015). 또한 창업동기는 창업을 의도하거나 선택하게 된 추진 동력이나 이유와 연관된 개념이며, 경제적 창업동기와 비경제적 창업동기로 구분 할 수 있다(배병윤·이주현, 2018).

창업동기에 관한 이론적 토대는 푸시-풀이론(push-pul theory)이며, 대표적 푸시(push)요인으로는 실업, 직업불만족, 낮은 임금 등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창업선택을 강요하는 부정적 상황을 포함하며, 대표적 풀(pul)요인으로는 독립심, 성취욕구, 사회적 사명 등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창업기회자체의 매력과 창업이 가져오는 긍정적 결과를 포함한다(Gilad & Levine, 1986). 풀요인을 위한 창업과 푸시요인에 의한 창업은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것은 동기요인이 가져오는 만족과 위생요인의 부족이 가져오는 불만족이 질적인 차이가 있는 Herzberg의 2요인 이론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DeShields et al., 2005). 이런 푸시-풀이론측면에서 GEM 연구에서는 창업동기에 따라 독립성, 자기개발, 인정 등에 의한 기회추구형 창업과 실업, 직업불만족, 가족의 압력 등에 의해 필요추구형 창업으로 구분하였다(Raynolds et al., 2001). 오늘날 젊은 창업자들은 과거 창업자들에 비해 기회 추구형의 비중이 높고 잘 사는 나라의 창업자들이 못사는 나라의 창업자들에 비해 기회 추구형 창업자의 비중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동기를 경제적 창업동기, 비경제적 창업동기로 구분하여 설문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경제적 창업동기는 푸시요인이나 필요추구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생계를 위한 소득증대, 부의 증대 등에

초점을 둔 창업동기이다. 비경제적 창업동기는 풀요인이나 기회추구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자아실현이나 사회공헌 등에 초점을 둔 창업동기이다.

창업자의 창업동기는 창업기업의 특성과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Begley & Boyd, 1987).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창업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창업동기 요인을 확인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고취시키는 것은 창업을 활성화 시키게 될 것이다. 창업동기는 소득증대, 경제적 보상 등의 경제적 창업동기와 독립성, 성취감 및 사회적 기여 등의 비경제적 창업동기로 구분 할 수 있다.

기업가지향성 유형에는 필요추구형 창업과 기회추구형 창업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이는 푸시-풀 요인과 연결된다(Kariv et al., 2009). 독특한 시장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 하였으면 기회추구형 창업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필요추구형 창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Raynolds et al., 2001). 풀 요인은 기회추구형 창업과 관련이 있으며 기업가적 경로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돈을 벌고, 독립하고,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여 사회 경제적 지위를 얻는 요인이다(DeFreitas, 1991). 반면, 푸시 요인은 필요추구형 창업으로 실업, 불안전 고용, 노동 시장 또는 이전 직업에서의 차별, 직업에서의 심각한 불만족 등의 요인이다(Kariv, 2011).

기업가지향성의 확산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위한 목표지향성을 향상시키고 창업동기를 부여하며, 이를 통한 창업 활성화로 인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Shane & Venkataraman, 2000). 양준환(2015)은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 창업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배병윤·이주현(2018)은 기업가지향성이 경제적 창업동기와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 높은 성과를 추구하기 위해 본인이 설정한 목표에 집중하여 달성하려는 목표지향성이 높은 대학생은 소득증대를 위해 창업을 할 의향이 있는 푸시요인인 경제적 창업동기와 독립성 및 성취감과 사회적 기여를 위하여 창업 할 의향이 있는 풀 요인인 비경제적 창업동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율성과 혁신성이 높고 위험을 감수하며 적극적이며 경쟁성이 강한 기업가지향성이 높은 성향의 대학생들은 경제적 창업동기와 비경제적창업동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2: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은 창업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은 경제적 창업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은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대학생의 개인 기업가지향성은 창업동기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대학생의 개인 기업가지향성은 경제적 창업동기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대학생의 개인 기업가지향성은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은 개인 기업가지향성과 창업동기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H4-1: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은 개인 기업가지향성과 경제적 창업동기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H4-2: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은 개인 기업가지향성과 비경제적 창업동기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H3. 대학생의 개인 기업가지향성은 창업동기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대학생의 개인 기업가지향성은 경제적 창업동기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대학생의 개인 기업가지향성은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은 개인 기업가지향성과 창업동기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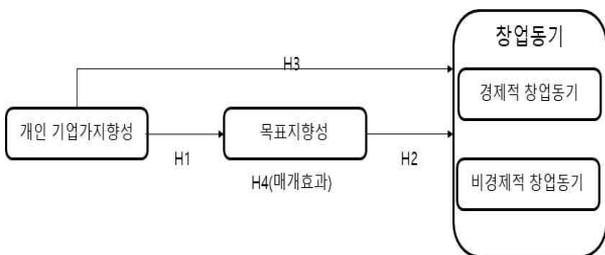
H4-1.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은 개인 기업가지향성과 경제적 창업동기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H4-2.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은 개인 기업가지향성과 비경제적 창업동기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과 가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모형과 가설을 수립하였고, 선행연구에서 이용한 설문지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수정 후 설문 문항 개발하였다. 그리고 창업분야 전공 교수에게 모형과 가설 및 설문 문항의 검토를 받아 구조적 설문지를 완성 하였다. 완성된 설문지의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 한 후 대학생들에게 창업 교육과 창업동아리 등의 지원을 하는 대학 3군대를 선정하여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간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H1. 대학생의 개인 기업가지향성은 목표지향성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은 창업동기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은 경제적 창업동기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은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변수 측정 및 조작적 정의

3.2.1. 개인 기업가지향성

Lumpkin & Dess(1996)가 개발하고 장대성·임성배(2005)가 활용한 기업가지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개인 기업가지향성은 총 18문항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개인 기업가지향성의 조작적 정의는 잠재적 창업자인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창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자율성, 혁신성, 위험감수, 적극성, 경쟁성의 행동의 성향으로 정의한다.

3.2.2. 목표지향성

Matsuno et al.(2002)와 신금순·양동우(2007)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목표지향성의 조작적 정의는 창업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더 높은 성과를 추구하기 위해 본인이 설정한 목표에 집중하여 달성하려는 성향으로 정의한다.

3.2.3. 창업동기

박시사(1997)와 배병운·이주현(2018)의 연구에서 사용된 경제적 창업동기 2문항, 비경제적 창업동기 3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창업동기는 경제적 창업동기와 비경제적 창업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창업동기의 조작적 정의는 대학생들이 경제적 보상, 소득증대 등 경제적 동기요인으로 창업을 할 의향으로 정의한다. 비경제적 창업동기의 조작적 정의는 대학생들이 성취감, 독립성 및 사회적 기여 등의 비경제적 동기요인으로 창업을 할 의향으로 정의한다.

IV. 실증 분석 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3개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315부 설문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남성 222명(70.5%), 여성 93명(29.5%)이고, 학년은 1학년이 11명(3.5%), 2학년이 35명(11.1%), 3학년이 132명(41.9%), 4학년이 132명(41.9%), 초과학기가 5명(1.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창업활동을 주로 하는 잠재적 예비창업자인 대학생 대상의 연구로 주로 3, 4학년이 대상이 되었다. A대학이 154명(48.9%), B대학이 57명(18.1%), C대학이 104명(33.0%)이고, 전공은 공학 분야가 95명(30.2%), 문화·경상·인문사회 분야가 114명(36.3%), 스포츠 분야가 40명(12.7%), 기타 분야가 66명(21.0%)으로 확인 되었다. 대학생의 전공은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비율)
성별	남	222(70.5)
	여	93(29.5)
학년	1학년	11(3.5)
	2학년	35(11.1)
	3학년	132(41.9)
	4학년	132(41.9)
	초과학기	5(1.6)
학교	A대학	154(48.9)
	B대학	57(18.1)
	C대학	104(33.0)
전공	공학 분야	95(30.2)
	문화·경상·인문사회 분야	114(36.3)
	스포츠 분야	40(12.7)
	기타	66(21.0)

4.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검증

<표 2>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과 크론바흐 알파 값을 정리 하였다. 개인 기업가지향성1, 2, 4, 19 측정 문항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4개 항목을 제거하고 15개 설문문항으로 분석을 진행 하였다.

Bartlett 구형성 검정의 p값이 유의하고, 기업가지향성의 크론바흐 알파(0.6이상), 고유값(1이상), 측정변수의 요인적재치(0.5 이상)으로 모두 양호하여 적절히 측정된 구성으로 판단된다 (Hair et al., 2010).

<표 2> 기업가지향성과 목표지향성의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측정항목	항목수	요인적재치		공통성	크론바흐 알파			
			1	2					
개인 기업가 지향성	개인 기업가지향성3	15	.553	.187	.340	.903			
	개인 기업가지향성5		.656	.132	.448				
	개인 기업가지향성6		.606	.147	.389				
	개인 기업가지향성7		.519	.058	.273				
	개인 기업가지향성8		.532	.100	.293				
	개인 기업가지향성9		.609	-.002	.371				
	개인 기업가지향성10		.548	-.171	.329				
	개인 기업가지향성11		.666	-.060	.447				
	개인 기업가지향성12		.734	.094	.548				
	개인 기업가지향성13		.773	.142	.618				
	개인 기업가지향성14		.802	.072	.648				
	개인 기업가지향성15		.696	.167	.513				
	개인 기업가지향성16		.761	.049	.582				
	개인 기업가지향성17		.610	.244	.432				
	개인 기업가지향성18		.597	.188	.392				
	목표 지향성		목표지향성1	4	-.067		.736	.547	.684
			목표지향성2		.117		.641	.425	
			목표지향성3		.063		.738	.549	
목표지향성4		.261	.686		.538				
고유값			6.434	2.247					
누적분산(%)			33.863	45.689					
KMO			.904						
Bartlett 구형성 검정			2404.245(.000)						

<표 3>는 종속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과 크론바흐 알파 값을 정리 하였다. 비경제적 창업동기1 측정 문항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1개 항목을 제거하고 2개 설문문항으로 분석을 진행 하였다.

Bartlett 구형성 검정의 p값이 유의하고, 기업가지향성의 크론바흐 알파(0.6이상), 고유값(1이상), 측정변수의 요인적재치(0.5 이상)으로 모두 양호하여 적절히 측정된 구성으로 판단된다 (Hair et al., 2010).

<표 3> 경제적 창업동기와 비경제적 창업동기의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측정항목	항목수	요인적재치		공통성	크론바흐 알파
			1	2		
경제적 창업동기	경제적 창업동기1	2	.366	.852	.860	.852
	경제적 창업동기2		.221	.920	.895	
비경제적 창업동기	비경제적 창업동기2	2	.883	.283	.860	.846
	비경제적 창업동기3		.891	.276	.870	
고유값			1.757	1.728		
누적분산(%)			43.917	87.112		
KMO			.702			
Bartlett 구형성 검정			632.931(.000)			

<표 2> 첫 번째 성분의 설명력은 33.863으로 <표 2>와 <표 3>의 총설명력의 절반 이하로 동일방법편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말하기 어렵다(podsakoff et al., 2003).

4.3. 확인적 요인분석 및 판별타당성 검증

<표 4>는 각 요인들의 구성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모형의 적합도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치(RMR 0.08이하, CFI 0.9이상, NFI 0.8 이상, RMSEA 0.1이하, GFI 0.9이상)에 충족 하거나 매우 가까운 수치로 나타나 모형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Hair et al., 2010).

또한, 모든 측정항목의 요인 적재치(0.5이상), 개념 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CR); 0.7이상),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AVE); 0.5이상)도 충족하거나 매우 가까운 수치로 나타났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	측정항목	표준화 계수	t값	CR	AVE			
개인 기업가 지향성	개인 기업가지향성3	0.526	-	0.916	0.429			
	개인 기업가지향성5	0.633	8.38					
	개인 기업가지향성6	0.54	7.569					
	개인 기업가지향성7	0.444	6.578					
	개인 기업가지향성8	0.463	6.785					
	개인 기업가지향성9	0.53	7.47					
	개인 기업가지향성10	0.466	6.823					
	개인 기업가지향성11	0.644	8.466					
	개인 기업가지향성12	0.751	9.221					
	개인 기업가지향성13	0.793	9.48					
	개인 기업가지향성14	0.806	9.552					
	개인 기업가지향성15	0.696	8.854					
	개인 기업가지향성16	0.739	9.148					
	개인 기업가지향성17	0.609	8.183					
	개인 기업가지향성18	0.581	7.946					
	목표 지향성	목표지향성1	0.54			-	0.757	0.439
		목표지향성2	0.566			6.453		
		목표지향성3	0.675			6.886		
목표지향성4		0.591	6.593					
경제적 창업동기	경제적 창업동기1	0.942	-	0.861	0.758			
	경제적 창업동기2	0.789	14.154					
비경제적 창업동기	비경제적창업동기2	0.866	-	0.856	0.748			
	비경제적창업동기3	0.846	15.295					
전반적 모형 적합도		RMR=0.059, CFI=.847, NFI=.793, RMSEA=0.083, GFI=.825						
일반적 기준치		RMR 0.08이하, CFI 0.9이상, NFI 0.8이상, RMSEA 0.1이하, GFI 0.9이상						

<표 5>는 요인간 상관관계와 판별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개인 기업가지향성 요인을 제외한 목표지향성, 경제적 창업동기, 비경제적창업동기 요인의 AVE의 제공근 값이 상관 계수 값보다 큰 값을 가짐으로 간 요인간의 판별타당성이 확인 되었으며, 이 방법이 판별타당성을 확인하는 가장 엄격한

방법임을 고려하였을 때 1개 요인의 판별타당성이 약하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Hair et al., 2010).

개인 기업가지향성을 자율성, 혁신성, 위험감수, 적극성, 경쟁성의 하위요인과 목표지향성, 경제적 창업동기, 비경제적창업동기 요인간의 판별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율성, 혁신성, 위험감수, 적극성 요인의 AVE 제공근 값이 상관계수 값보다 낮은 수치가 나타났다. 개인 기업가지향성의 하위요인간의 판별타당성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개인 기업가지향성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을 진행 하였다.

<표 5> 요인 간 상관관계와 판별타당성 분석

요인	1)	2)	3)	4)
1) 개인 기업가지향성	0.655*			
2) 목표지향성	0.331	0.663*		
3) 경제적창업동기	0.616	0.304	0.870*	
4) 비경제적창업동기	0.676	0.349	0.680	0.865*

* Square root of AVE

4.4. 가설 검증

가설 H1, H2, H3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설 H4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6>는 가설 검증 하기 위해 실시한 경로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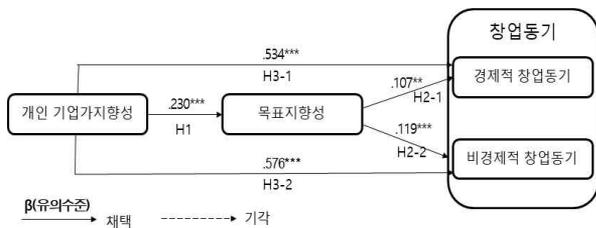
모형의 적합도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치(RMR 0.08이하, CFI 0.9이상, NFI 0.8이상, RMSEA 0.1이하, GFI 0.9이상)에 충족 하거나 매우 가까운 수치로 나타나 모형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Hair et al., 2010).

경로분석 결과 <표 6>과 <그림 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 기업가지향성이 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4.185($p < 0.01$)로 나타나 1% 유의수준에서 가설 H1이 채택되었다. 목표지향성이 경제적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2.234($p < 0.05$)로 나타나 5% 유의수준에서 가설 H2-1은 채택되었고, 목표지향성이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2.597($p < 0.01$)로 나타나 1% 유의수준에서 가설 H2-2는 채택되었다. 개인 기업가지향성이 경제적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11.204($p < 0.01$)로 나타나 1% 유의수준에서 가설 H3-1은 채택되었고, 개인 기업가지향성이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12.587($p < 0.01$)로 나타나 1% 유의수준에서 가설 H3-2는 채택되었다.

<표 6> 경로분석 결과

가설	경로	B	β (유의수준)	t값	가설지지 여부
H1	개인 기업가지향성→ 목표지향성	.211	.230***	4.185	채택
H2-1	목표지향성→ 경제적 창업동기	.165	.107**	2.234	채택
H2-2	목표지향성→ 비경제적 창업동기	.177	.119***	2.597	채택
H3-1	개인 기업가지향성→ 경제적 창업동기	.760	.534***	11.204	채택
H3-2	개인 기업가지향성→ 비경제적 창업동기	.787	.576***	12.587	채택
전반적 모형 적합도		RMR=0.062, CFI=.868, NFI=.868, RMSEA=0.37, GFI=.939			
일반적 기준치		RMR 0.08이하, CFI 0.90이상, NFI 0.80이상, RMSEA 0.10이하, GFI 0.90이상			

*:p<0.1, **:p<0.05, ***:p<0.01



*:p<0.1, **:p<0.05, ***:p<0.01

<그림 2> 가설검증 결과

개인 기업가지향성과 창업동기의 관계에서 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표 7>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 기업가지향성이 경제적 창업동기와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목표지향성이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7> 은 AMOS의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이용하여 총 효과와 직접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개인 기업가지향성이 목표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매개변수인 목표지향성은 종속변수인 경제적 창업동기와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개인 기업가지향성이 목표지향성을 거쳐서 경제적 창업동기에 미치는 총 효과는 .559(p<0.01)이며, 개인 기업가지향성이 경제적 창업동기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534(p<0.01)이고, 목표지향성을 거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024(p<0.1)로 나타나 H4-1은 유의수준 10%에서 채택되었다. 개인 기업가지향성이 목표지향성을 거쳐서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미치는 총 효과는 .603(p<0.01)이며, 개인 기업가지향성이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576(p<0.01)이고, 목표지향성을 거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027(p<0.1)로 나타나 H4-2는 유의수준 1%에서 채택되었다. 개인 기업가지향성이 목표지향성을 거쳐서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27(p<0.1)로 경

제적 창업동기의 간접효과 .024(p<0.1)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7> 매개효과 검증 결과

가설	구분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가설지지 여부
		개인 기업가지향성	목표지향성	
-	목표지향성	.230*** (.230***, .000)	.000	
H4-1	경제적 창업동기	.559*** (.534***, .024*)	.107* (.107*, .000)	채택
H4-2	비경제적 창업동기	.603*** (.576***, .027***)	.119*** (.119***, .000)	채택

*:p<0.1, **:p<0.05, ***:p<0.01

V. 결론 및 제언

청년실업의 문제는 이미 국내외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이며,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의 한가지인 창업은 여러 방면의 관심 속에 연구되어오고 있다. 창업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인재를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생들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개인 기업가지향성 증진으로 목표지향성 더해지면 경제적 창업동기와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대학생들의 창업동기를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까지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연구를 보면 대학생 대상의 자기효능감, 기업가지향성, 창업동기, 창업의지 등 변수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와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업가지향성, 목표지향성, 성과 등 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실증 연구 등이 있었다(강성두·강영순, 2012; 배병윤·이주현, 2018; 양준환, 2015; 이현경·이일한, 2016). 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기업가지향성, 목표지향성, 창업동기의 구조 모형을 통해 이들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힌 실증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즉,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이론적 차별적 요인은 창업자 대상에 주로 사용된 변수인 기업가지향성 변수를 잠재적 창업자인 대학생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한 부분이다. 또한 개인 기업가지향성, 목표지향성, 창업동기(경제적 창업동기, 비경제적 창업동기) 변수의 새로운 구조모형을 제시하고, 이들 각 변수들의 관계를 밝힌 것이다. 개인 기업가지향성과 창업동기 관계에 매개변수로 목표지향성을 설정하였고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힌 것 또한 선행연구와 차별적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 통하여 확인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대학생의 개인 기업가지향성 향상은 목표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는 중소기업 경영자 대상으로 연구를 한 강성두·강영순(2012)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도 개인 기업가지향성 증진으로 목표지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둘째로는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은 경제적 창업동기와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새로운 연구결과로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경제적 창업동기와 비경제적 창업동기를 높일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목표지향성이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119***)이 경제적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beta=.107**$)보다 약간 크다. 이러한 결과는 목표지향성의 향상은 소득증대, 경제적 보상 등의 경제적 창업동기 보다 독립성, 성취감 및 사회적 기여 등의 비경제적 창업동기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로는 대학생의 개인 기업가지향성은 경제적 창업동기와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배병운·이주현(2018)의 대학생 대상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기업가지향성의 증진은 푸시요인과 필요추구형과 유사한 경제적 창업동기 뿐만 아니라 푸시요인과 기회추구형과 유사한 비경제적 창업동기에도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넷째로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은 개인 기업가지향성과 경제적 창업동기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있으며, 개인 기업가지향성과 비경제적 창업동기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대학생들의 개인 기업가지향성 증진을 통해 경제적 창업동기와 비경제적 창업동기를 직접적으로 높일 수도 있다만 목표지향성 거쳐서 높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로 개인 기업가지향성이 목표지향성을 거쳐서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27($p<.01$)로 경제적 창업동기의 간접효과 .024($p<.1$)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의 기업가지향성 증진으로 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창업동기에 높이고자 할 때 비경제적 창업동기가 경제적 창업동기보다 약간 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는 잠재적 창업자인 대학생의 개인 기업가지향성과 목표지향성과, 창업동기(경제적 창업동기, 비경제적 창업동기)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개인 기업가지향성과 창업동기(경제적 창업동기, 비경제적 창업동기)의 관계에서 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실무적 시사점은 대학생들은 창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율성, 혁신성, 위험감수, 적극성, 경쟁성의 개인 기업가지향성을 개발함으로써 목표지향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창업동기는 물론 비경제적 창업동기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개인 기업가지향성을 개발함으로써 경제적 창업동기와 비경제적 창업동기를 높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영향력은 비경제적 창업동기($\beta=.576***$)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약간 크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경제적 창업동기를 통한 창업은 경제적 창업동기 창업동기를 통한 창업보다 국가 성장 발전에도 더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창업의 기회를 새롭게 갖고자 하는 대학생 예비 창업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료로 기능할 것이다. 또한 정부기관(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의 대학생 창업 육성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 기업가지향성이 경제적 창업동기와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통계적으로 정(+)의 관계가 있을 밝혔다. 하지만 두 변인간의 반대 방향의 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즉, 경제적 창업동기와 비경제적 창업동기가 기업가 지향성에 미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창업동기가 강한 대학생의 기업가지향성이 개발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전략적 또는 정성적 추가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개인에게 설문한 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개인 기업가정신의 측정 항목을 이용한 것은 아니다.

향후 연구에서 개인 기업가정신 측정 항목으로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생과 창업을 연결 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를 찾아 실증연구 진행이 필요하다.

REFERENCE

강성두·강영순(2012). 중소기업 경영자의 기업가정신과 조직구성원의 목표지향성이 조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구조방정식 모형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439-452.

국가통계포털(2021). *경제활동인구*. Retrieved 2021.01 from <https://kosis.kr>.

김선우·박진서(2018). 기업가정신의 국제적 연구동향. *한국창업학회지*, 13(2), 293-308.

이재석·이상명(201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기업가 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0(3), 61-74.

이현경·이일환(2016). 대학생의 개인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1(3), 111-120.

박시사(1997). 한국 여행업의 창업결정에 관한 실전적 모형. *관광레저연구*, 9(2) 69-93.

배병운·이주현(2018). 대학생의 조절조점 성향이 기업가지향성, 창업동기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3(2), 1-24.

신금순·양동우(2007). 외식업 창업자의 특성과 서비스지향적인 노력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0(6), 2639-2666.

장대성·임성배(2005). EO (Entrepreneurial Orientation)와 창업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18(3), 1121-1143.

양준환(2015).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4), 2564-2572.

Bae, B. Y., & Lee J. H.(2018).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Regulatory Focu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3(2), 1-24.

Begley, T. M., & Boyd, D. P.(198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entrepreneurial firms and smaller business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 79-93.

Bolton, D. L., & Lane, M. D.(2012). Individu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 Development of a

- measurement instrument. *Education+Training*, 54(2-3), 219-233.
- Brockhaus Sr, R. H.(1980). Risk taking propensity of entrepreneu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3(3), 509-520.
- Bulus, M.(2011). Goal Orientations, Locus of 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in Prospective Teachers: An Individual Differences Perspective. *Educational Sciences: Theory and Practice*, 11(2), 540-546.
- Chang D. S., & Lim S. B.(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EO(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the Success of Venture Creation.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18(3), 1121-1143.
- Covin, J. G., & Lumpkin, G. T.(2011). Entrepreneurial orientation theory and research: Reflections on a needed construct.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5(5), 855-872.
- DeFreitas, G.(1991). *Inequality at work: Hispanics in the US labor for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 DeShields, O. W., Kara, A., & Kaynak, E.(2005). Determinants of business student satisfaction and retention in higher education: applying Herzberg's two-factor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management*. 19(2), 128-139.
- Dweck C. S., & Eliot, E.(1983). *Achievement motivation*. In E. Hea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Wiley.
- Gilad, B., & Levine, P.(1986). A behavioral model of entrepreneurial supply.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4(4), 45-53.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7th ed.)*, NJ: Prentice Hall.
- Kang, S. D., & Kang, Y. S.(2012). Effects of CEO's Entrepreneurship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Goal Orientation of Employees on Collective Efficacy: Approach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10), 439-452.
- Kariv, D.(2011). Entrepreneurial orientations of women business founders from a push/pull perspective: Canadians versus non-Canadians, A multinational assessment. *Journal of Small Business & Entrepreneurship*, 24(3), 397-425.
- Kariv, D., Menzies, T. V., Brenner, G. A., & Filion, L. J. (2009). Transnational networking and business performance: Ethnic entrepreneurs in Canada.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21(3), 239-264.
- Kim, S. W., & Park, J. S.(2018). Global Trend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3(2), 293-308.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2021).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Retrieved 2021.01 from <https://kosis.kr>.
- Lee, H. K., & Lee, I. H.(2016). The Study of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Creativity and Self-effica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3), 111-120.
- Lee, J. S., & Lee, S. M.(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3), 61-74.
- Lumpkin, G. T., &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Matsuno, K., Mentzer, J. T., & Özsoyner, A.(2002).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proclivity and market orientation on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marketing*, 66(3), 18-32.
- McClelland, D. C.(1961). *The Achieving Society*, New Jersey: Princeton.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Park, S. S.(1997). A Study on Enterprising Decision Model of Travel Agency in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9(2) 69-93.
- Podsakoff, P. M., MacKenzie, S. B., Lee, J. Y., & Podsakoff, N. P.(2003).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5), 879.
- Raynolds, P. D., Camp, M. S., Bygrave, W. D., Autio, E., & Hay, M.(2001).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01 executive report*, Lontoo & Kansas City: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and Management.
- Van Yperen, N. W.(2003). Task interest and actual performance: the moderating effects of assigned and adopted purpose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6), 1006.
- Santos, G., Marques, C. S., & Ferreira, J. J.(2020). Passion and perseverance as two new dimensions of an Individu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 scal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12, 190-199.
- Seijts, G. H., Latham, G. P., Tasa, K., & Latham, B. W. (2004). Goal setting and goal orientation: An integration of two different yet related literatur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7(2), 227-239.
- Sexton, D. L., & Bowman, N.(1986). Validation of a personality index: comparative entrepreneurial analysis of female entrepreneurs, managers, entrepreneurship students and business student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Wellesley, MA: Babson College*, 40-51.
- Shane, S., & Venkataraman, S.(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 Shin K. S., & Yang, D. W.(2007). The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Service Orientation and Venture's Success in Restaurant Busines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6), 2639-2666.

- Slevin, D. P., & Terjesen, S. A.(2011). Entrepreneurial orientation: Reviewing three papers and implications for further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development.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5(5), 973-987.
- Wang, L., Ali, M., Kim, H. J., Lee, S., & Hernandez Perlines, F.(2021). Individu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 value congruence, and individual outcomes: Does the institutional entrepreneurial environment matter?.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30, 2293-2312.
- Yang, J. H.(2015). A Study of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4), 2564-2572.

[부록] 설문지 측정문항

<목표지향성>

1. 내가 다른 친구나 동료보다 성과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매우 기분이 좋다.
2. 나는 내 업적을윗사람이나 상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한다.
3. 나는 내 업적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시간이 많다.
4. 나는 더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개인 기업가지향성>

1. 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직면했을 때 내 스스로 결정하고 그 책임을 지려하는 편이다.
2. 나는 한번 시작한 일은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꼭 마무리하는 편이다.
3. 나는 어떤 아이디어가 머리에 떠오르면 반드시 실행을 하는 편이다.
4. 나는 팀에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의 달성을 위해 팀원들을 하나로 이끄는 재능이 있다.
5. 나는 항상 많은 시간을 새로운 아이디어와 아이템의 구상에 할애하는 편이다.
6. 나는 실패를 각오하더라도 새로운 변화를 꾸준히 추구하는 편이다.
7. 나는 기존의 것들이 성공적인 지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8. 나는 크게 사업에 성공할 기회만 보인다면 그에 수반되는 큰 모험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9. 나는 새로운 사업의 미래가 조금 불확실해 보이더라도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성공적 사업기회만 보인다면 재정적으로 큰 무리를 해서라도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1. 직장생활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불안정하더라도 창업 등을 통해 도전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12. 나는 틈새시장을 발견하고 공략하는데 자신이 있다.
13. 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주도하는데 재능이 있다.
14. 나는 기존과 전혀 다른 제품을 개발하여 고객들에게 소개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자신이 있다.
15. 나는 고객의 수요가 파악되면 누구보다 기민하게 수요에 대응해서 반응할 자신이 있다.
16. 나는 새로운 시장에 기존의 업체가 방해할 하더라도 물리치고 성공적인 진입과 정착을 할 자신이 있다.
17. 나는 비록 현재 후발주자이더라도 곧 선발주자를 물리칠 자신이 있다.
18. 나는 경쟁업체와 같은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보다는 이들과 다른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우위를 점할 자신이 있다.
19. 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로 출혈을 하더라도 경쟁업체의 공격에 정면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창업동기>

1. 나는 소득 증대를 위하여 창업을 할 의향이 있다.
2. 나는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하여 창업을 할 의향이 있다.

<비경제적 창업동기>

1. 나는 나의 경험과 노하우의 활용을 위하여 창업을 할 의향이 있다.
2. 나는 독립성 및 성취감을 위하여 창업을 할 의향이 있다.
3. 나는 사회적 인정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하여 창업을 할 의향이 있다.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Individu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 Goal Orientati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of Korean College Students

Byung Yun Bae*

Abstract

This he problem of youth unemployment is already a very serious social problem at home and abroad, and entrepreneurship, which is one of the ways to solve the problem of youth unemployment, has been studied with interest from various fields. Entrepreneurship not only overcomes the economic crisis, but also plays a role in nurturing innovative talent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or this reason, it can be said that research for activating entrepreneurship for college students is very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individu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goal orientation affect economic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non-economic entrepreneurial motivation in order to confirm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economic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non-economic entrepreneurial motivation. In add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motivation (economical and non-economic), we will examine whether goal orientation has a mediating effect.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individu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f university students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goal orientation.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goal orientation of college students had a positive (+) effect on economic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positive (+) influence on non-economic entrepreneurial motivation.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individu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f college students had a positive (+) effect on economic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a positive (+) effect on non-economic entrepreneurial motivation.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college students' goal orientation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conomic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also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non-economic entrepreneurial motivation.

KeyWords: Individu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 Goal Orientati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Global Business, Halla University, byungyun.bae@halla.ac.kr